

## 주공 임대주택 취·등록세 면제

##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이 보유한 미분양주택 등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또 주택건설사업자가 매입한 주택보증 보유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취·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양온천 개발용 부동산 ▲국제회의시설 및 전시산업용 부동산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시행자가 매입한 부동산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가 취득한 부동산 ▲친환경건축물 및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키로 했다.

정남도가 올 해 SOC(사회간접 자본) 조성 사업에 2조4천억 원대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전남도는 10일, 여수세계박람회와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 등 지역 현안사업을 비롯해 해양관광클러스터와 산업클러스터 등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각종 사업의 기반이 될 SOC조성사업에 모두 2조4천6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고속도로의 경우 여수박람회 기반시설인 전주~광양 간과 목포~광양 간 2개 구간에 6천378억 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에 2천 원 등 3개 구간에 6천399억 원이 투입된다. 국도는 장성~아은, 완도~군위, 도안~강진, 한령IC~수호리, 이양~능주 등 5개 구간 35km가 개통되고 암해~암태, 여수~고흥 등 9개 구간 44km가 착공되는 등 53개 구간에 6천748억 원이 투입된다.

철도망 구축사업에는 총 6개 구간에 7천727억 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호남고속철도의 기본·실시설계 및 보상이 추진되고 여수박람회

KTX 투입을 위한 전라선 익산~여수 간 194km 복선전철화사업, 보성~임성, 동순~광양, 진주~광양 간 등 계속사업도 추진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송례문 복구현장 공개

10일 송례문 첨사 1주년을 맞아 문화재청이 송례문 복구현장을 일반에 공개했다. 공개현장은 전국에서 물려온 관람객으로 북적였다. 문화재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인원을 순서대로 입장 시켰다.

/연합뉴스

## 青, 윤증현 재정 장관 임명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관련기사 8면>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이 대통령이 어제 저녁 8시 전자결재를 통해 윤장관 임명안에 서명했다”면서 “윤장관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